

제 1 장 탄생부터 탈국까지

탄생 · 어린소년시대

니이지마 조는 1843 년 2 월 12 일 (구력 1 월 14 일), 에도의 칸다에 있던 안나카번 에도 저택에서 출생했습니다. 4 명의 **자매가 연속이었던**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기에 가족들은 대를 이어나 갈 아들이라는 것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명은 ‘시메타’라고 불리우며, 그에 대한 유래가 2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정월에 대문 앞에 소나무를 세우는 기간 때에 집 안에 금줄(시메나와)이 장식되어 있어서 시메타라고 지었다는 설. 두번째는 , 조부인 벤지가 기쁜 나머지 ‘시메타’라고 외치며 불렀던 것에서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니이지마는 밖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특히 연 날라기에 열중했으며,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집에 돌아가는 것을 잊어 버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을 꾸중하기** 위해 아버지 민치는 연을 압수하고는 했지만, 몰래 재료를 모아 스스로 **다시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8 세 무렵에 쓰레기를 모으는 울퉁불퉁한 곳 위에서 떨어져서 관자놀이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어, 니지마는 밖에서 노는 것을 그만두고 학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민치는 달필로 서사 **일을 하고 있었기에**, **니이지마**는 5 세 무렵부터 아버지에게 습자를 배웠습니다. 10 세가 되면서 한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만, 학문을 장려한 번주 ‘이타쿠라 카즈아키라’는 그의 재능을 기대하여, 난학도 **배우게 했습니다**. 14 세가 되어 관례를 맞이한 **니이지마**는 번주로부터 아버지의 뒤를 **잇게하기 위해** 서사 보조를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니지마는 난학에 열중한 나머지 직무를 게을리하고, 일부러 번저택을 빠져 나와 난학소에 다니게 됩니다. 이타쿠라 카즈아키라의 대를 잇고 있는 남동생 카즈마사는 학문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니지마를 불러 학문을 그만두도록 설득했으나, **니이지마**가 필사적으로 학문을 계속 하고 싶다는 열망을 **호소했기에** 학문소에 가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청년시대

1860 년 11 월, 17 세의 니지마는 군함교수소에 입소해, 그 곳에서 교수를 맡고 있던 나카하마 만지로를 만납니다. 나카하마 만지로는 토사의 어부로, 1841 년 **출어(出漁)** 중에 **조난당했던 것을** 미국의 포경선에 의해 구해져, 메사추세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장 덕분에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학업에 전념하고 항해사가 되어, 귀국한 것입니다. **니이지마**는 여기서 수학, 항해술, 측량술 등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1862 년 11 월, 19 세의 니지마는 군함 교수소에서 배운 것을 인정받아, 빗추마츠야마번주 **이타쿠라 카츠키요(板倉勝静)**가 타마시마 항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니지마는 빗추마츠야마번의 무사들과 함께 에도만에서 ‘쾌풍환’을 타고 태평양 연안에서 오사카를 경유하여 타마시마까지 항해를 약 2 개월에 걸쳐 왕복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바다 바깥의 세계에 나와 이국의 문화를 접한 니지마는, 이 항해로 세계는 **넓다는 것을** 실감하여, **세상에 대한** 견해와 생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니이지마**가 다니던 난학 **학교**의 선생님이, **니이지마**에게 몇 권의 책을 빌려 주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에는 **해외에 대한** 동경을 불러 **일으켰고**, 미국을 소개한 ‘연방지략’을 읽고나서 미국의 정치와 교육, 복지 정책 등에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은 부모나 번주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일본을 **탈국해야** 한다는 결의를 굳혀 갔습니다.

3. 하코다테 시대

타마시마 항해로부터 1년 후인 1864년 3월, **니이지마**는 우연히 타마시마 항해에서 함께했던 빗추마즈야마번의 무사들과 만났고, 이번에는 ‘쾌풍환(快風丸)’이 하코다테로 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니이지마**는 자신도 이 항해에 동행하여 하코다테에 가는 것을 결심하고, 조속히 번주를 만나 동행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코다테에 있는 다케다학원이라는 학문소에 **학업을 위해** 간다는 것이었지만, 내심으로는 해외로 **나갈**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코다테에 도착한 **니이지마**는 다케다 학원을 방문했지만, 선생인 ‘다케다 아야사부로’는 부재중이었고, 대신에 사감되는 ‘스가누마 세이이치로’가 상담에 응해주었습니다. 니지마는 외국인과 **교류를 하고 싶다는** 상담을 했고, 며칠 후 스가누마는 러시아 **사제인** ‘니콜라이’를 소개해주었습니다. 니지마는 사제사택에 **머물게 해주는 대신** 니콜라이에게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후, 니지마는 니콜라이에게 해외여행의 꿈을 털어냈지만, 니콜라이는 **협력하기를** 거절하고, **꿈을 단념하고, 자기 밑에서** 계속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니콜라이로부터 거절당한 **니이지마**는 다시 스가누마 세이이치로에게 상담을 하러 갔고 그 때, 스가누마는 ‘사와베 타쿠마’를 소개해주고, 사와베는 ‘후쿠시 나리토요’를 소개해주었습니다. 후쿠시는 원래 배를 만드는 목수였지만 하코다테에 거주하는 미국 영사에게서 영어를 배우고 ‘알렉산더 포터 상회’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이지마**는 얼마간 후쿠시에게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곧 **탈국(脱国)**의 결의를 털어놓고, 후쿠시는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4. 탈국(脱国)과 바다 위생환

후쿠시는 하코다테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선박 베를린호의 선장 ‘세이버리’와 협상해, **니이지마**를 배에 승선시키는 것을 성사시켰습니다. 1864년 7월 17일(구력 6월 14일) **늦은 밤**, **니이지마**는 마을주민으로 변장하여 후쿠시가 기다리고있던 파지장에 가서, 후쿠시가 준비해둔 작은 선박에 **니이지마**를 태우고 해안에 정박하고 있던 베를린호를 **향해 갔습니다**. 베를린호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이버리 선장은 **니이지마**를 선실의 방에 숨겨 주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있던 짐 검사에 걸리지 않고, **니이지마**는 무사히 일본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버리는 **니이지마**를 ‘선장 전속 소년’으로 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심부름이나 청소세탁과 같은 일을 **힘들게 느꼈으나**, 이윽고 **니이지마**는 스스로 무사의 상징인 마케를 잘라, 더 이상 **무사이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베를린호는 상하이로 경유하여 나가사키에 입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니이지마**는 세이버리에게, 상하이에서 자신을 실어줄 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이버리는 **배를 찾지 못했지만**, 마침내 미국의 보스턴으로 가는 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니이지마**는 환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을 목적지로 하는 ‘와일드로버호’의 선장 테일러는 친근한 마음으로 **니이지마**를 ‘쥬’라고 불러, 해당 선박에서도 **니이지마**는 ‘선장 전속 소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니이지마**는 승선을

하게 해 준 답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도(長刀)를 테일러에게 주었고, 테일러는 그에 대한 답례로 ‘영어번역 성경’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기항한 홍콩에서, 니이지마는 테일러에게 자신의 소도(小刀)를 8 달러에 팔아, 서점에서 ‘한문번역 성서’를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이지마는 염원하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65 년 7 월 20 일, 와일드로버호는 무사히 보스턴에 입항했습니다.

제 2 장 미국에서의 유학생활

1. 하디와의 만남

테일러 선장은 배를 내리기 전에 니이지마에게 약간의 용돈을 건네 주고, 니이지마를 돌봐 줄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니이지마는 서점에서 갖게 된 영어판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중이 올 때까지 외로운 여정을 견뎌냈습니다. 도착한 지 한 달 후, 상하이까지 니이지마를 태워준 세이버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는 니이지마를 몰래 태웠던 것이 원인이 되어 해고되어, 나가사키에서 영국을 경유하여 태어나 자랐던 고향 보스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이버리가 니이지마를 돌봐 주지는 않았습니다.

선상 생활을 시작하고서 약 80 일 후, 와일드로버호의 소유자인 ‘알피아스 하디’가 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왔는지 묻는 하디에게 니이지마는 대답을 했지만, 그가 말하는 영어를 하디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디는 니이지마를 선원회관에 데려가 미국에 온 이유를 문장으로 쓰도록 시켰습니다. 니이지마는 이틀 간 밤을 새가며 영어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니이지마가 태어났을 무렵의 일, 난학에 전념했던 일, 서적으로 미국을 알게 되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디는 이 문서에 감동하여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2. 필립스 아카데미 시대

하디는 니이지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하디)는 청년기에 목사를 준비하던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단념한 적도 있었고, 그 후는 젊은 세대의 교육 지원에 노력했고, 니이지마가 그 후 가게 되는 3 곳의 학교의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865 년 10 월, 니이지마는 앤드버에 있는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니이지마의 나이는 21 세였지만, 영어 습득을 첫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때, 기차라는 것을 처음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니이지마가 쓰는 일체의 비용을 하디가 부담해주었습니다.

원래라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할 것을, 니이지마는 영어 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스 히든은 필립스 아카데미 재학시 하숙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도 니이지마가 쓴 ‘탈국의 이유서’를 읽고,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숙집이 같고, 아카데미와 같은 부지내에 있는 앤드버 신학교에 다니는 플린트 부부는 니지마에게 정성껏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니이지마는 놀랐습니다. 히든은 교회학교의 교사였기 때문에, 니이지마는 자주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866년 12월, **니이지마**는 앤드버 신학교 부속 교회의 버렛 채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3. 애머스트 대학 시대

1867년 9월, **니이지마**는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애머스트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애머스트 대학에서는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배우는 코스에 들어가게 되어, 특히 지질학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철학과 종교의 교사였던 실리 교수는 **니이지마**가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이나 휴가로 기숙사가 단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여러가지로 그를 집으로 맞이해 챙겨주었습니다. **니이지마**는 실리의 인격을 통해 인간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써, 교육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리는 **니이지마**를 **평하기를**, ‘금에 도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 **니이지마**의 인격을 **높이 평했습니다**.

니이지마의 **룸메이트**는 **홀랜드**였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가장 선한** 기독교인이라 불리우는 **니이지마**와 같은 방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조용한 것이 **생쥐와 같다**’라는 것이 **니이지마**에 대한 **홀랜드의 평**이었습니다. **니이지마**와 **홀랜드**의 공통된 취미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광물 **채취**였고, **니이지마**와는 매일 밤 성서를 한 장씩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니이지마는 1870년 7월, 이학사의 학위를 수여받아, 애머스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니이지마**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동급생들은 졸업 30년을 기념하여 **니이지마**의 초상을 만들어 모교에 주었습니다. 현재도 존슨 채플에는 **니이지마**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제3장 유럽으로의 여행과 품은 뜻

1. 앤드버 신학교 시대

애머스트 대학 재학 중에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던 **니이지마**는 1870년 9월 앤드버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여기서 기숙사 생활을 보내면서 신학을 배우고 있었는데, 다음해 3월, 주미공사 ‘모리 아리노리’가 보스턴에서 **니이지마**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모리 아리노리의 주선으로, **니이지마**는 유학 면허증과 여권 취득이 가능해지고, 이걸로 일본으로 귀국할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비(公費)**를 받고 정부의 숙박을 받는 것만큼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는 **니이지마**에게 귀국명령을 내렸으나, 모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미국에 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활동은, 이와쿠라 사절단을 위해 미국의 교육 제도를 설명하는 역할을 **니이지마**에게 맡기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872년 3월, 이와쿠라 사절단이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시찰 방문으로 왔을 때, **니이지마**는 문부 이사관 ‘타나카 후지마로’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12명의 공비지원을 받는 일본인 유학생이 **있었는데**, 타나카를 향해, 유학생들은 영주에게 하는 방식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니이지마**는 가볍게 **끄덕이**는 인사만을 하고, 타나카도 **니이지마**에게는 악수만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 **니이지마**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2. 유럽 교육 시찰

타나카의 신뢰를 얻은 **니이지마**는 미국의 교육 제도 시찰을 위해 미국 국내의 다양한 학교를 방문할 때 안내나 통역, 그리고 시찰 보고서의 작성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나카로부터 그 후의 유럽 시찰에도 동행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뢰를 받은 것입니다. **니이지마**는 앤드버 신학교를 1년간 휴학하여, 타나카 문부이사관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다양한 학교의 역할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교육의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타나카는 일본의 교육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니이지마**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함께 귀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니이지마**는 앤드버 신학교에서의 학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제안은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이미 **니이지마**는 일본에 기독교주의 학교를 설립하는 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아메리칸 보드 연례 대회에서의 연설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니이지마**는 선교사로서 아메리칸 보드에서 오사카로 파견된 고든에게서 편지를 받는데, 귀국해서 그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자격을 얻은 **니이지마**는 아메리칸 보드에서 선교사로서 일본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1874년 10월, 버몬트주의 래틀랜드에서 개최되는 아메리칸 보드 제 65회 연례 대회에서, **니이지마**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교회의 1000명 정도의 **가득 찬** 청중 앞에서 그는 본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조국이 어떻게 기독교 **기반으로 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를 강하게 어필하고,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찬성하여, 최종적으로는 총액 5000달러 정도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의 농부가 돌아가는 운임을 절약해서, 2달러를 기부한 것에 대한 에피소드는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니이지마**는 기독교의 전도와 학교 설립이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서,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 4 장 귀국부터 개교까지

1. 학교 설립을 위하여

탈국한 지 10년 후인 1874년 11월 26일, **니이지마**는 요코하마항에 내려섰습니다. 그 다음 날, 인력거를 3대 빌려 **‘안나카’**로 향한 **니이지마**는, 에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있던 가족과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 안나카에서 **지낸 후,** **니이지마**는 칸사이를 향해 출발합니다. 오사카, 코베에는 아메리칸 보드의 선교사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니이지마**는 개교 허가를 얻기 위해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사카부지사 ‘와나타베 노보루’는 기독교주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교토부 지사 ‘마키무라 마사나오’는 **니이지마**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협력자로서 ‘야마모토 카쿠마’라는 인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당시, 야마모토 카쿠마는 교토부 고문이라고 하는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우에무라와 함께 산업의 육성이나 교육의 추진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카쿠마는 원래 아이즈번의 무사였지만, **막부의 편에 서서** ‘도바 후시미 전투’에 참전해, **실명(失明)**한 후 교토에 있던 사즈마번 저택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측근이 **필기하라고 시킨** 신정부앞 건백서(‘관견’)가 높게 평가되어 석방 후에도 교토에 머물러 교토의 근대화에 진력하게 되었습니다. **니이지마**의 이야기를 들은 야마모토 카쿠마는 그 학교를 교토에 만드는 것을 진행시키고, 게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75년 8월, **니이지마**는 야마모토 카쿠마와 연명으로 교토부에 [사학 개업원]을 제출해, 아메리칸 보드의 선교사 ‘데이비스’가 최초의 교원으로써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교 소문을 들은 불교 승려와 신사 신관들에 의한 배척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성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교토부에 서약해야만 했습니다.

2. 도시샤 개교와 **마찰**

1875년 11월 29일 오전 8시, **니이지마**의 집에서 행해진 기도회에서 ‘관허 도시샤 영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이 모이는 결사’인 **도시샤(同志社)**는, 8인의 학생과 2인의 교사 (**니이지마** 조와 J.D.데이비스)로 구성된 작고 작은 한 방울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침, 개교에 앞서 **니이지마**가 집에서 바쳤던 그 부드러운 눈물에 얼룩졌던, 진지한 기도를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라고, 데이비스는 나중에 집필한 ([**니이지마**의 전기])에 적었습니다.

니이지마의 사상에 찬동하고 있던 교토부 고문 야마모토 카쿠마로부터 이미 구입했던 구 사즈마번 저택터의 땅(현 이마테가와 교지)에, 다음해 9월에는 2개의 **교실과** 식당 하나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키리시단**아중문금지-기독교금지명령]의 **명령이** 해체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승려나 신관들의 반발은 심했던 것입니다. 투석이나 야유에 둘러싸여 있는 중에, 북측에는 ‘쇼코쿠사(**사찰**)’, 남측에는 ‘고쇼(**천황궁**)’라는, 불교와 신도 사이에서의, 곤란한 **시작이었습니다**.

3.[삼십번 교실]과 쿠마모토 밴드

개교할 때 교내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주고받았기에 처음에는 **성도**의 가정에서 성경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구 사즈마 번 저택터로 **학교부지**를 옮기자 길 사이에 있던 **학교 밖의** 두부 가게를 구입하여 성경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신학관이라 하는 **폐가**는 ‘삼십번 교실’ 혹은 ‘잉글랜드’라고 학생들에게 불렸습니다.

쿠마모토에서는 **번(藩)**이 미국에서 L.L.제인스를 초청하여 양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공감한** 35인이 쿠마모토시 하나오카야마의 산 정상에 모여,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를 섬기는 결의 표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박해를 받고, 심한 박해가 생겨나, 1876년 9월에 양학교는 폐교되어 버렸습니다. L.L.제인스의 소개로 배움터를 잃은 학생들 40여 명을 도시샤 영학교는 받아들이고, 예과(신학과)를 설치하여, 삼십번 교실에서 성경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의 학생들을 나중에 ‘구마모토 밴드’라고 불렸습니다.

4. [자책의 지팡이] 사건

도시샤 개교 5 년 만인 1880 년 3 월 사건이 터졌습니다. 교사회는 1878 년 9 월에 입학한 학생 **클라스**와 1878 년 1 월에 입학한 학생 **클라스**를 하나로 묶어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불만을 가진 상급생들은 **[건의서]**를 제출해서, 학교의 방침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윽고, 무단 결석이라는 과업으로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1880 년 4 월 13 일 예배에서 **니이지마**는 「집단 결석이라는 교칙 위반은 그들의 죄도 간사의 **죄도 아니다**. 교장인 자신의 잘못이고 부덕의 소치다. 따라서 그 교장을 벌하겠다」고 말하고, 들고 온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왼손을 계속 쳤습니다.

그 상황 안에 있던 학생 중 한 명인 ‘도쿠토미 이치로(소호)’는, **그** [자책의 지팡이] 사건 후에 **퇴학당하지만**, 결국은 문필가로써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학 후에도 헌신적으로 **니이지마**의 도시샤대학설립운동에 참가해, [도시샤대학설립의 취지] 작성을 완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 5 장 개교부터 영면까지

1. [지방에도 교육을 !]

니이지마는 여러 지역에 기독교주의 학교가 생기는 것을 꿈꿨습니다. 1886 년에는 미야기현에 미야기영학교를 설립하여 스스로가 교장이 되었습니다. SEEK TRUTH AND DOOD(진리를 찾아 선을 행하라)라는 모토를 내걸고, 이듬해에는 ‘토우카학교’로 개칭되었으나, **니이지마**가 죽은 후 (1892 년)에 폐교되어 버렸습니다. (현재도 센다이니카중학교 교사 외벽에는 이 모토가 걸려 있습니다.) 1889 년에는 군마현에 ‘교아이사’가 설립되어, **니이지마**도 발기인 중 한 명으로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서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의학에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보드의 의료 선교사였던 J.C.베리와 상담하여, 1887 년 도시샤 병원과 교토 **간호부** 학교를 설치했습니다. 베리가 병원장, 니지마가 **간호부** 학교 교장이 되었지만, 재정난 때문에 1897 년에 병원이, 1906 년에는 **간호부**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 년에 도시샤 여자 대학 간호학부라는 형태로 개설되어, **니이지마**의 뜻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구미만유 여행과 유언

1884 년 4 월 5 일 **니이지마**는 ‘제 2 차 구미만유 여정’을 떠났습니다. **휴양**을 목적으로 한 여행이었지만, 대학 설립 자금을 모금해, 기독교에 관해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머무는 동안에는 교황을 면회하고 싶어했으나,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의무여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릎을 교황 앞에서 꿇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며 권위와 권력에 대해 반골심이 넘치는 **니이지마**였지만, 자신의 꿈과 뜻인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곳곳에서 고개를 숙여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1888 년 11 월에는 ‘도시샤 대학 설립 취지’가 전국의 신문, 잡지에 게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1889 년 11 월 29 일 밤, 군마에서 모금 활동을 하러 뛰어다니던 중에 심한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카나가와현 오이소의 무카데야에 있는 별채를 빌려 **휴양**하고 있었지만, 1890 년 1 월 17 일에는 [급성 복막염증] 진단을 **받았지만**, 아내 야에가 도착했을 때에는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1월 21일, 이른 아침 도시샤의 미래설계도, 장래희망 등에 대한 유언을 구술로 전하게 되고, 그것을 도쿠토미 소호가 필기했습니다.

3. 영면 장례 묘

니이지마는 1890년 1월 23일 오후 2시 20분, 46세 11개월로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첫 **토카이도(東海道)** 기차 여행은, 유해가 되어 하게 된 여행이 되었습니다. 교토역 도착은 심야 진눈깨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600명 이상의 도시샤, 교회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와 가로등도 없이 질퍽거리는 길에서 번갈아 **관을 짊어지며**, 겨우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1월 27일에는 도시샤 예배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관을 댄 3000여명의 행렬은 나쿠오지 산 정상 무덤까지 이어졌습니다. 나쿠오지 산에 있는 도시샤 **공동묘지**의 묘비에는, 친구 가쓰 가이슈의 우정 어린 글시체로 '**니이지마 조의 묘**'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아내 야에와 가족, 선교사들의 많은 묘비도 나란히 있습니다. 그 묘지의 입구, **더욱이 니이지마 조의 묘석**에 마주보는 곳에는 '마즈모토 고헤이'의 묘석이 서 있습니다. 도시샤의 직원으로써 오랫동안 근무했기에, 학생들에게는 '고헤이, 고헤이'라로 반말로 불리며 **작업을 시키는** 와중에, **니이지마가 '고헤이 상'이라고 '존칭'을 붙여** 일을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조'라고 부르는 아내 야에에게 있어서도, '야에 상'이라고 말을 걸었던 **니이지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니이지마**는 유언에서 '싫을지라도 교직원들은 학생을 정중하게 **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니이지마**가 모든 사람에게 '존칭'을 쓰는 모습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엿보입니다. 이 말에는 이름을 부르듯 정중하게 학생의 인격과 계속해서 마주했으면 하는 **니이지마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1843(덴포 14)	2월 12일 (구력 1월 14일), 안나카번에도저택에서 태어나다. 아명, 시메타	미즈노 타다쿠니 실각으로 덴포개혁이 끝나다
1853(가에이 6)	안나카번 학문소에 들어가 소에카와 렌사이에게 한문을 배우다. 검술과 무술 연습도 시작하다.	페리 내항.
1856(안세이 3)	안나카번 주 이타쿠라 카즈아키의 명으로 타미자 준스케에게 난학을 배우다.	익년, 일미화친조약
1857(안세이 4)	안나카번 주 이타쿠라 카즈아키가 사망해, 남동생 카즈마사가 대를 잇다.	익년, 일미수호통상조약
1860(만엔원)	번주의 호위역으로 처음으로 죠슈안나카에 가다. 막부의 군함 교수소에서 나카하마 만지로를 만나다. 수학, 항해술, 측량술 등을 배우다.	사쿠라다 문 밖의 변
	군함교수소에 학생중매역을 맡음. 무리한 공부로 눈이 상하다.	링컨, 미 대통령에 취임. 남북전쟁 (~65)

1861(분큐원)	눈병이 원인으로 군함 교수소 퇴학	
1862(분큐 2)	이듬해에 걸쳐, 빗추마츠야마번의 서양식 범선 ‘쾌풍환’으로 우라가에서 타마지마까지 왕복 난학 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다.	사카시타문의 변. 카즈노미야장가. 나마무기사건
1863(분큐 3)	안나카번청으로부터 하코다테의 다케다 학원에 1년간 입문 허가를 받다.	사츠에이전쟁. 팔 · 이팔 정변
1864(간지원)	쾌풍환으로 하코다테에 입항. 러시아영사관 사제 니콜라이 신부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다. 7 월 17 일(구력 6 월 14 일) 미국선 베를린호에 탑승해 탈국, 상하이에서 미국선박 와일드로버호로 옮긴다. 배 안에서 테일러 선장에게 ‘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홍콩에서 한문번역성경을 구입하다	금문의 변. 제 1 차조슈정벌
1865(게이오원)	7 월 20 일, 와일드로버호, 보스턴항에 입항. 선주 A.하디에 탈국이유서를 제출해, 하디가에 인계되다. 필립스 아카데미에 입학하다 앤드버 신학교 부속교회에서 세례를 받다. 필립스 아카데미 수료, 애머스트 대학에 입학.	제 2 차조슈정벌선언.
1866(게이오 2)		
1867(게이오 3)		
1868(명치원)		삿초연합. 대정봉환. 왕저복고의 대호.
1869(명치 2)	애머스트 대학졸업, 애머스트 신학교 입학.	무진전쟁(~69)
1870(명치 3)	워싱턴 주재 소관무관 모리 아리노리와 보스턴에서 만나다. 모리 아리노리에 의해, 도해유학면허증과 여권이 니지마에게 우송되다.	5 개조의 맹세문, 오방의 게시 아메리카 대륙 횡단 철도 개통. 도쿄천도. 판적봉환.
1871(명치 4)		
1872(명치 5)	이와쿠라 전권대사 사절단에 대한 협력을 요청받다. 교육시찰의 통역을 의로받고, 미국 각지를 시찰. 이듬해에 걸쳐서 타나카 후지마로 이사관 일행과 함께 영국, 스위스, 러시아 등 유럽 각지를	폐번치현. 우편개업. 독일제국성립.

	<p>시찰하다.</p> <p>앤드버 신학교 복학을 위해 뉴욕으로 돌아가다.</p>	<p>학제공포.</p> <p>신바시 요코하마 간 철도 개통.</p>
<p>1873(명치 6)</p> <p>1874(명치 7)</p>	<p>목사 자격을 취득하다. 앤드버 신학교를 졸업하다.</p> <p>아메리칸 보드 대회에서의 연설로 기부금 5000 달러를 얻다.</p> <p>11 월 26 일, 귀국. 요코하마항에 내리서다.</p>	<p>징병령.</p> <p>크리스천 금지 제도 게시</p>
<p>1875(명치 8)</p>	<p>학교용지로 교토에 있는 구 사츠마번 저택터를 550 달러에 구입. 11 월 29 일, 관허도시샤영학교를 개교하다.</p>	<p>민찬의원설립건백</p>
<p>1876(명치 9)</p>	<p>야마모토 야에와 혼인. A.J.스타크웨더가 여학원을 개설.</p>	<p>헌법제정수립 조칙</p> <p>폐도령. 익년, 세이난전쟁</p>
<p>1880(명치 13)</p>	<p>4 월 13 일, 도시샤 조례 자리에서, [자책의 지팡이] 사건이 일어난다.</p>	<p>국회기성동맹.</p>
<p>1882(명치 15)</p>	<p>[도시샤대학설립지 주의 지굴안]의 작성을 끝내다.</p> <p>[도시샤대학설립의 유래]를 기안하다.</p>	
<p>1883(명치 16)</p>	<p>[도시샤설립 시말]을 기안하다.</p>	
<p>1884(明治 17)</p> <p>1884(명치 17)</p>	<p>[제 2 차 구미만유 여행]에. 이탈리아 각지를 견학하다.</p>	
<p>1885(명치 18)</p>	<p>A.하디에게 소년시대를 기록한 문장을 드리다.</p>	<p>내각제도 발족</p>
<p>1887(명치 20)</p> <p>1889(명치 22)</p>	<p>아버지 민지가 사망하다(81 세). A.하디, 폐혈증으로 사망(71 세)</p>	<p>익년, 시정촌제 발포</p>
<p>1890(명치 23)</p>	<p>마에바시 린코카쿠에서 연설하다. 숙소에 돌아가고 나서 복통을 호소.</p> <p>1 월 17 일, [급성복막염증] 진단을 받게되어, 21 일,</p>	<p>대일본제국헌법 발포</p>

<p>1891(명치 24)</p>	<p>아내 야에, 도쿠토미 이치로, 코자키 히로미치, 입회하에 유언을 밝히다. 1월 23일, 급성복막염으로 서거(46세). 도시샤 예배당 앞에서 장례식. 시신은 학생들에게 메워져 냐쿠오지산에 묻히다.</p> <p>묘비명을 가쓰 가이슈가 적다.</p>	<p>제 1 회 제국의회 개회 교육 칙어 발포</p>
--------------------	---	------------------------------------